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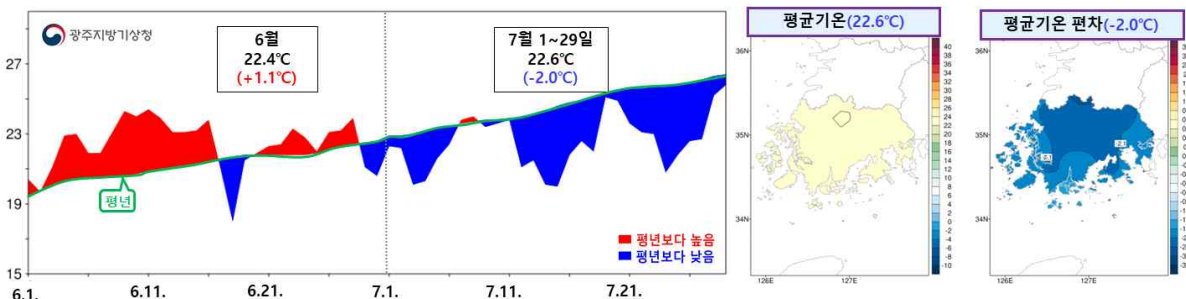
배포일시	2020. 7. 30.(목) 16:00 (총 5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기후서비스과 예보과	담당자	과장 우종택 과장 김용상
		전화번호	062-720-0669 062-720-0332

7월 기온과 강수 분석, 8~9월 기상전망

- 7월 기온이 선선하고 장마철이 길어진 원인
 - 우리나라 북쪽에 찬 공기가 정체하고 있고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 수축함에 따라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장기간 영향을 미쳤음
- 8~9월 기상전망
 - 8월 상순부터 차차 기온이 상승하여 폭염 발생 예상
 - 강수량은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
- 향후 장마철 전망
 - 남부지방 31일 장마철 종료

□ 기온 현황

-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던 6월과 달리 7월(1~29일)의 광주·전남¹⁾ 평균기온은 **22.6°C**(평년 -2.0°C)로 1973년 이후 46위, 폭염 일수는 **0.0일**(평년 -1.9일)로 하위 1위, 열대야 일수는 **0.3일**(평년 -2.5일)로 하위 6위를 기록하면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
 - 이러한 경향은 중국 중부와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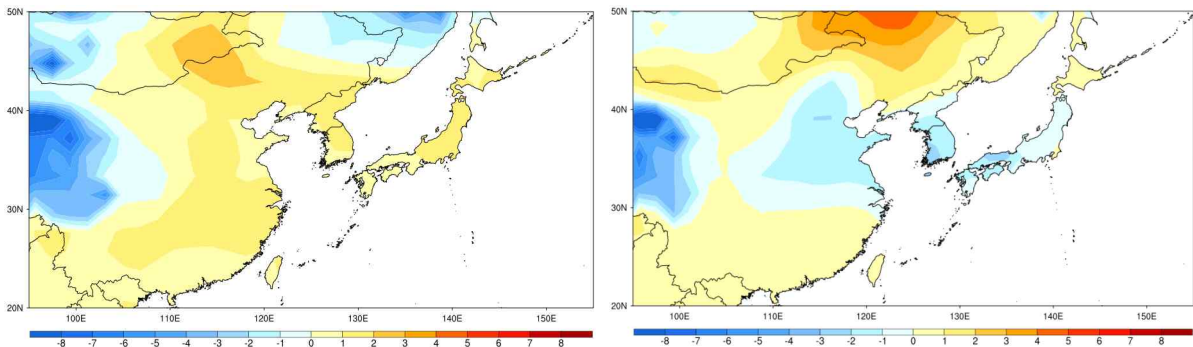


[그림 1] (왼쪽) 6월 1일~7월 29일 광주·전남 평균기온 일변화 시계열, (오른쪽) 7월 1~29일 분포도

1) 광주·전남 평균값은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7개 지점(광주, 목포, 여수, 완도, 장흥, 해남, 고흥) 관측값을 사용함

[표 1] 6월과 7월(1~29일) 기온 관련 기상요소별 순위(1973년 이후 광주전남 평균)

구분	2020년 6월		2020년 7월 1~29일	
	순위	값(°C/일)	순위	값(°C/일)
평균기온(평년비교)	상위 2위	22.4(+1.1)	하위 3위	22.6(-2.0)
평균 최고기온(평년비교)	상위 7위	26.8(+1.0)	하위 3위	25.7(-2.6)
평균 최저기온(평년비교)	상위 5위	18.7(+1.2)	하위 4위	20.3(-1.5)
폭염일수(평년비교)	상위 7위	0.3(+0.2)	하위 1위	0.0(-1.9)
열대야일수(평년비교)	상위 6위	0.0(0.0)	하위 6위	0.3(-2.5)



[그림 2] 6월과 (오른쪽) 7월 1~29일 지상 기온 편차(채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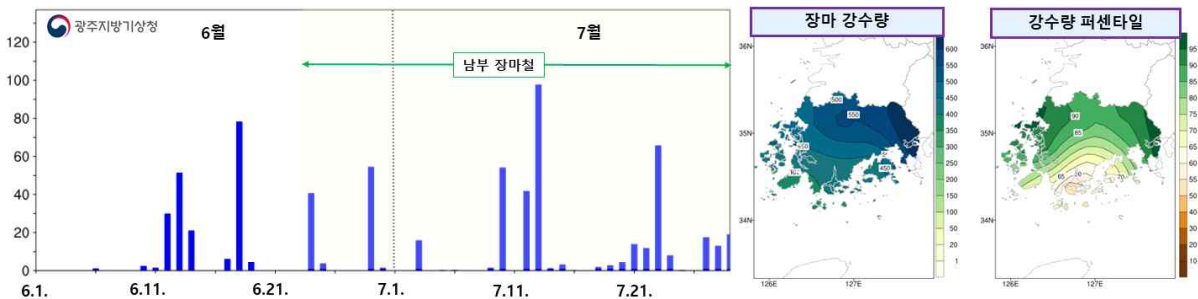
□ 광주·전남 장마철(장마철 시작~7. 29.) 현황

- 현재(7.29.)까지 남부지방의 장마철은 6월 24일에 시작해 3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

※ 장마철 기간이 가장 긴 해(남부): 2013년 6.18.~8.2.(46일)

- 장마철 기간에 광주·전남지역의 경우 487.8mm로 평년(376.3mm)보다 강수량이 많았습니다.

※ 남부지방 529.4mm(348.6mm), 중부지방 398.6mm(평년 366.4m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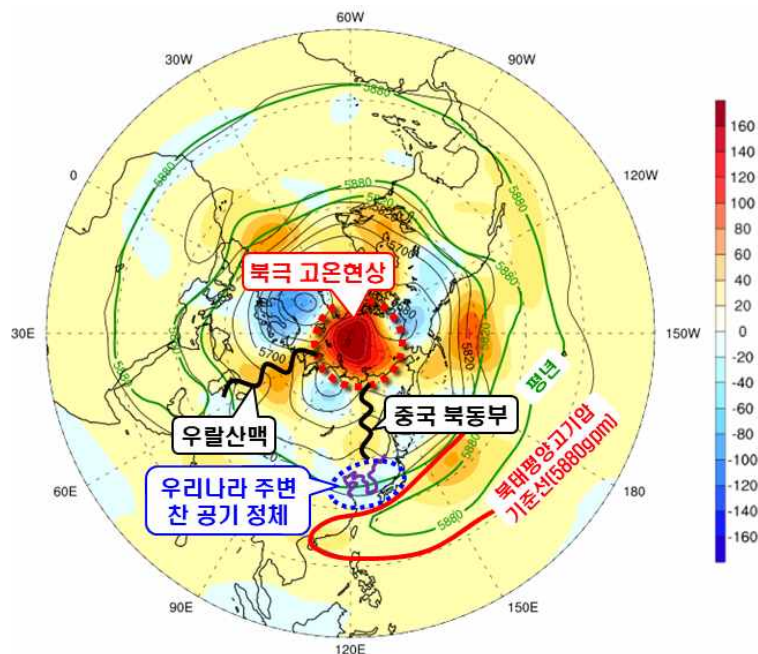


[그림 3] (왼쪽) 6월~7월(29일) 광주전남 강수량 일변화 시계열 (오른쪽) 장마(6.24.~7.29.) 강수량과 퍼센타일 분포도

* 퍼센타일(백분위): 평년 동일 기간의 강수량을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값을 0, 가장 큰 값을 100으로 하는 수임(평년 비슷 범위: 33.33~66.67 퍼센타일)

□ 기온이 선선하고 장마철이 길어진 원인

- 북극 고온현상과 블로킹으로 우리나라 주변 찬 공기가 정체하였습니다.
 - (북극 고온현상과 블로킹) 6월 말 동시베리아에서 발생한 블로킹²⁾에서 분리된 고기압이 북서진하여 북극에 정체하면서 고온현상이 발생하여 중위도 기압계의 변동이 커졌습니다.
 - 우랄산맥과 중국 북동부에 고압대가 발달하여 동서 흐름이 느려지면서, 우리나라 주변으로 찬 공기가 위치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.
- (찬 공기 정체) 우리나라 주변에 찬 공기가 정체하여 따뜻하고 습한 공기인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고 일본 남쪽에 머무르면서, 정체전선이 주로 제주도 남쪽 해상~남해안에 위치하였습니다.
 - 이로 인해, 우리나라 주변에 찬 공기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, 장마철에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 잦아 낮 동안 기온이 오르지 못했습니다.
 - 또한, 중국 남부까지 동서로 길게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,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자주 내려 중부와 남부와의 지역 차이가 컸습니다.
 - 한편,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 확장이 지연되는 가운데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 정체전선이 자주 활성화되면서 장마철이 길게 이어졌습니다.



[그림 4] 7월 1~29일 500hPa(약 5.5km 상공) 고도(실선)과 고도 편차(채색)

2) 블로킹 또는 저지고기압: 고위도에서 정체하거나 매우 느리게 이동(서진하는 경우도 많음)하는 키가 큰 온난고기압

- (중국과 일본 폭우) 6월 이후 정체전선이 중국중남부~남해면바다~일본 열도에 위치하여 중국(장강 일대)과 일본(규슈 등)에서는 두 달여간 지속적인 폭우가 발생하였습니다.
- 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일본 남쪽 해상에서 중국 중남부까지 동서로 길게 확장한 가운데, 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정체전선이 지속되었습니다.

□ 광주·전남 8~9월 기상전망

- 기압계 변화 상황
 - (티벳 눈덮임 영향) 봄철 눈덮임이 평년보다 많아 7월 하순부터 티벳고기압의 영향을 예상했으나, 중국 지역에 장기간 강수가 이어지면서 지면 가열이 억제되어 티벳고기압의 확장 지연되었습니다.
 - (북극 해빙, 블로킹) 7월 현재 북극 해빙이 역대 최소를 기록하면서 중위도 지역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고 우랄산맥과 동시베리아 지역으로 블로킹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찬 공기가 정체되었습니다.
 - (엘니뇨/라니냐) 여름철 동안 중립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,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이 지연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쪽 확장 억제되었습니다.
- (기온 전망) 평년(23.8℃)보다 0.5~1.5℃ 높겠고, 8~9월 폭염 일수는 평년(3.7일)보다 많겠고, 작년(7.3일)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.
 - (8월) 장마철에서 벗어나 차차 기온이 상승하면서 낮에는 일사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고,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로 인해 무더운 날이 많겠습니다(평년 25.8℃보다 0.5~1.0℃ 높고, 작년 26.5℃와 비슷).
 - ※ 평균 최고기온: 29.9℃(평년), 32.3℃(2016년), 32.1℃(2018년), 30.5℃(2019년)
 - ※ (폭염일수) 최고기온 33℃ 이상: 평년 3.6일, '16년 15.0일, '18년 13.1일, '19년 7.3일
 - ※ (열대야일수) 밤최저기온 25℃ 이상: 평년 5.0일, '16년 9.6일, '18년 16.4일, '19년 10.2일
 - (9월)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다가 중순부터 중국내륙에서 다가오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겠으며, 낮 중심으로 더운 날이 많겠습니다(평년 21.8℃보다 0.5~1.0℃ 높고, 작년과 비슷).
 - ※ 평균 최고기온: 26.6℃(평년), 26.8℃(2016년), 25.8℃(2018년), 26.7℃(2019년)
 - ※ (폭염일수) 최고기온 33℃ 이상: 평년 0.1일, '16년 0.1일, '18년 0.0일, '19년 0.0일
 - ※ (열대야일수) 밤최저기온 25℃ 이상: 평년 0.4일, '16년 0.0일, '18년 0.0일, '19년 0.0일

- (강수량 전망) 평년(318.2~535.1mm)과 비슷하거나 많은 경향을 보이겠으며,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.

※ 강수량 평년 비슷 범위 : (8월) 192.2~309.6mm, (9월) 61.3~215.1mm

□ 향후 장마철 전망

- (남부지방)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은 중부지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남부지방은 7월 31일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러나 이후에도 강한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있겠습니다.
- (변동성) 다만,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우리나라 북쪽의 건조 공기 강도에 따라 중부지방의 장마철 종료 시기가 매우 유동적이니, 향후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